

강진군 대표 관광지 월출산 일대 확 바뀐다

군·국립공원공단, 월출산 국립공원 관리·관광 활성화 협약 200억 투입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조성 등 생태 관광 강화

강진군의 서북부 대표 관광지인 월출산 일대가 새롭게 바뀐다.

강진군은 최근 강진원 군수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출산 국립공원 관리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진 월출산 관광명소화사업이 추진되면 경치가 아름다운 금릉 경포대, 다산의 흔적이 남아있는 백운동 원림, 천년고찰 무위사, 강진다원, 월남사지 등 관광 명소와 연계한 다양한 생태탐방프로그램 활성화로 강진군의 관광 지도가 새롭게 바뀔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두 기관은 월출산 국립공원 전체의 경관을 보존하면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강진군은 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해 월출산 국립공원 일대에 다양한 생태탐방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강진군 지역의 월출산 국립공원에 저지대 숲 체험 시설과 야영장 등을 건립한다.

강진군은 시설 건립을 위한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 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저지대 숲 체험 시설에는 숲의 중·상층부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하늘 전망대와 탐방로 등이 들어선다.

야영장에는 공원과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강진 백운동 원림을 만날 수 있는 옥판봉 탐방로도 만들어진다.

강진군의 이 외에도 66억원을 투입한 백운동 원림 전시관을 다음 달 준공한다. 30억원 사업비를 들여 성전 녹차밭 주변 돌레길을 정비하고 촬영 공간을 설치하는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다산 정약용의 글을 만날 수 있는 백운동 원림과 금릉 경포대, 천년고찰 무위사, 강진다원, 월남사지, 이한영 차 문화원 등 관광 명소와 연계한 '강진 월출산 관광 명소화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강진원 군수,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위원장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강진



강진원(오른쪽 다섯 번째) 강진군수와 송형근(왼쪽 네 번째)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등이 최근 '월출산 국립공원 관리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월출산 권역 관광 명소화를 위한 공원시설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건의해온 결실이라고 강진군 측은 설명했다.

강진군과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 실무협의를 구성해 숲 체험 시설과 야영장 등이 들어설 후부터 지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진군 월출산국립공원 내에 다양한 체류형 탐방 인프라를 구축할 새로운 기회가 마련됐다"며 "관광 인프라를 강화해, 관광객 대거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현실로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지역 인재 채용 기업 모집

담양군, 이달 25일까지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지원

담양군이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지역인재 고용창출과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을 선정해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50만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 대상 기업은 담양에 소재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기업이다.

2023년 신규 채용과 지난해 대비 근로자 수 증가, 신규 채용 대비 지역인재 채용 비율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10일간 담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여기업 신청현황(서식)을 작성해 담양군 청 주자경제과 담당자에게 메일 제출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담양군 내 민간기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경쟁력 있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이달 초 내린 집중 호우로 장흥군 관산을 고마지구 간척 농경지 일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50mm 비에도 침수' 장흥 간척 농경지 대책 시급

바다보다 낮은 관산을 고마지구 이달 초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 배수펌프 고장에 피해 키위...농어촌공 "용도 변경 등 방안 고심"

장흥지역 간척 농경지가 집중 호우 때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보고 있어 농정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17일 장흥군 관산을 고마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달 초 이 지역에 내린 340mm 호우로 이 일대 간척 농경지와 축사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관산을 고마지구에는 축구장(7140㎡) 120개 면

적인 86ha 간척 농경지가 조성돼있다.

고마지구 간척 농경지는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18년 조성된 이후 자연 배수가 잘되지 않는 지형 탓에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곳은 농경지 높이보다 바다가 높은 지형을 지니고 있다.

장흥에서 간척지 농경지는 전체 농경지 9670ha의 약 40% 비중인 3797ha를 차지하고 있다.

이곳 농민들은 강수량 50mm만 넘겨도 고마지구 간척 농경지는 침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호우 때는 배수펌프 4기가 버락을 맞아 고장 나면서 침수 피해를 키웠다.

김영훈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은 "장흥지역 간척지 대부분이 지형상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연간 드는 배수 관리비용만 8억원 이상이다. 배농사 위주 농경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작업중인 이학동 화백.

102세 화백이 그리는 고향 나주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선물 되길"

이학동 화백 특별전...20일부터 나주문예회관

청운(靑雲) 이학동(102) 화백의 특별전시가 고향인 나주에서 열린다. 100세를 넘은 나이에 열정을 쏟은 작품들뿐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는 전시회로서 의미가 깊다.

'무궁화 작가' 이학동 화백이 오는 20일부터 10일 동안 나주문예예술회관 전시실에서 특별 초대전을 연다.

고향을 잃어버린 현대사회 시민들에게 따뜻한 행복을 선물한다는 의미로 고향이야기를 담는다. 이 화백의 공개되지 않은 유화 작품과 100세 이후 작품 활동으로 탄생한 40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동행'의 의미를 담아 이 화백의 제자인 김예지의 작품 10여점도 함께 전시된다. 전시회 개최에는 나주시와 시의회, 나주예총 등이 참여한다.

이 화백은 여전히 그림에 정열을 쏟고 있으며 지역문화운동과 후학예술인 양성을 위한 '문화사랑방'도 운영하고 있다.

이학동 화백은 "5월은 싱그러움이 빛을 발하는 희망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자 슬픔이 진하게 배어있는 통곡의 시간"이라며 "이번 전시회가 시민들에게 행복과 긍지를 담아 예술의 가치를 공유하고 의미 있는 삶의 정겨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학동 화백은 1923년생으로, 조선대 미대 1회 졸업생이며 서양화를 전공했다. 서양화는 오지호, 한국화는 허백련을 사사했다. 동양화도 섭렵해 장르를 뛰어넘는 독자적 가치관과 자유분방한 미학, 통찰의 세계를 보여주는 화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강진군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확대

80곳에 마을당 320만4000원...전년비 9% 인상

강진군이 농번기를 맞아 새삼 챙기기에 바쁜 농업인들을 위해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강진군은 한 마을에 294만원 지급하던 공동급식 지원비를 올해 자체 예산을 편성해 320만4000원으로, 9%(26만4000원) 인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동급식 지원 대상 마을은 모두 80곳이다.

마을별로 농작업 상황에 따라 연간 30일 상·하반기로 나눠 급식을 운영한다.

공동급식은 바쁜 농번기에 밥상을 차리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웃과 친목을 다지고 농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강진군 측은 기대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여성 농업인의 식사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영농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강진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의 올해 농정분야 예산은 797억원으로, 전년(618억원)보다 22% 늘었다. 20~75세 여성 농어업인이 받는 행복바우처는 76~85세 여성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5억원 늘린 19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나주시, 65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비 50% 지원

나주시가 질병 면역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50%를 지원한다.

대상포진은 신체 내 비활성과 상태로 잠복해 있는 수두바이러스가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발병한다.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 발병률이 높으며 신경질을 따라 흉선성 수포형태로 나

타하는데 극심한 통증, 발진을 수반해 예방 접종이 필수다.

나주시는 전국적으로 위탁의료기관 백신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을 감안해 백신 확보에 나서고 접종비 본인부담금 50%를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대상포진 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 접종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계층이 아닌 일반시민의 경우 평균 13만~15만원의 접종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

나주시는 대상포진 예방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했다. 6월 중 백신 구입이 완료되면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본격적인 접종이 이뤄질 전망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 나주를 위해 원활한 백신 확보와 접종률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경찰, 마약 근절·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함평중 정문서...청소년 안전 환경 조성

함평경찰이 함평중 학교를 찾아 학교폭력 예방 및 마약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

함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16일 함평중 정문에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마약근절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윤장기 함평경찰서장과 범민경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찰, 교사, 학생 등이 참여 마약근절과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나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시음행사를 가장한 마약음료에 대한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



은 음료나 사탕 등 먹지 말것을 당부했다. 윤장기 함평경찰서장은 "유관기관과 캠페인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 및 마약 등 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의 안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